

신(神)의 산(山)으로 떠난 여행
피터 매디슨 지음 | 이한중 옮김
갈라파고스 | 1만3천5백원

1973년, 당시 40대의 나이였던 미국의 탐험가이자 소설가인 저자 피터 매디슨(77)과 동료 동물학자 조지 셸러(71)는 네팔의 포카라에서부터 5주동안 4백km를 걸어 '돌포'에 이르는 긴 여정을 떠난다. '돌포'는 티베트 고원 남서부의 네팔과 접경하고 있는 작은 지역. 중국이 티베트를 강점한 이후 서방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땅이다. 그곳에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크리스탈 사원'이란 뜻의 '셰이 고평파'가 자리잡고 있다. 두 사람에게 이 여행의 목적은 신화적 동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인들이 만나기 힘든 '눈표범(snow leopard)'을 찾는 것. 하지만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다. 동물학자인 조지 셸러는 과학적 탐구대상으로, 저자는 정신적 화두로서 '눈표범'을 찾아 나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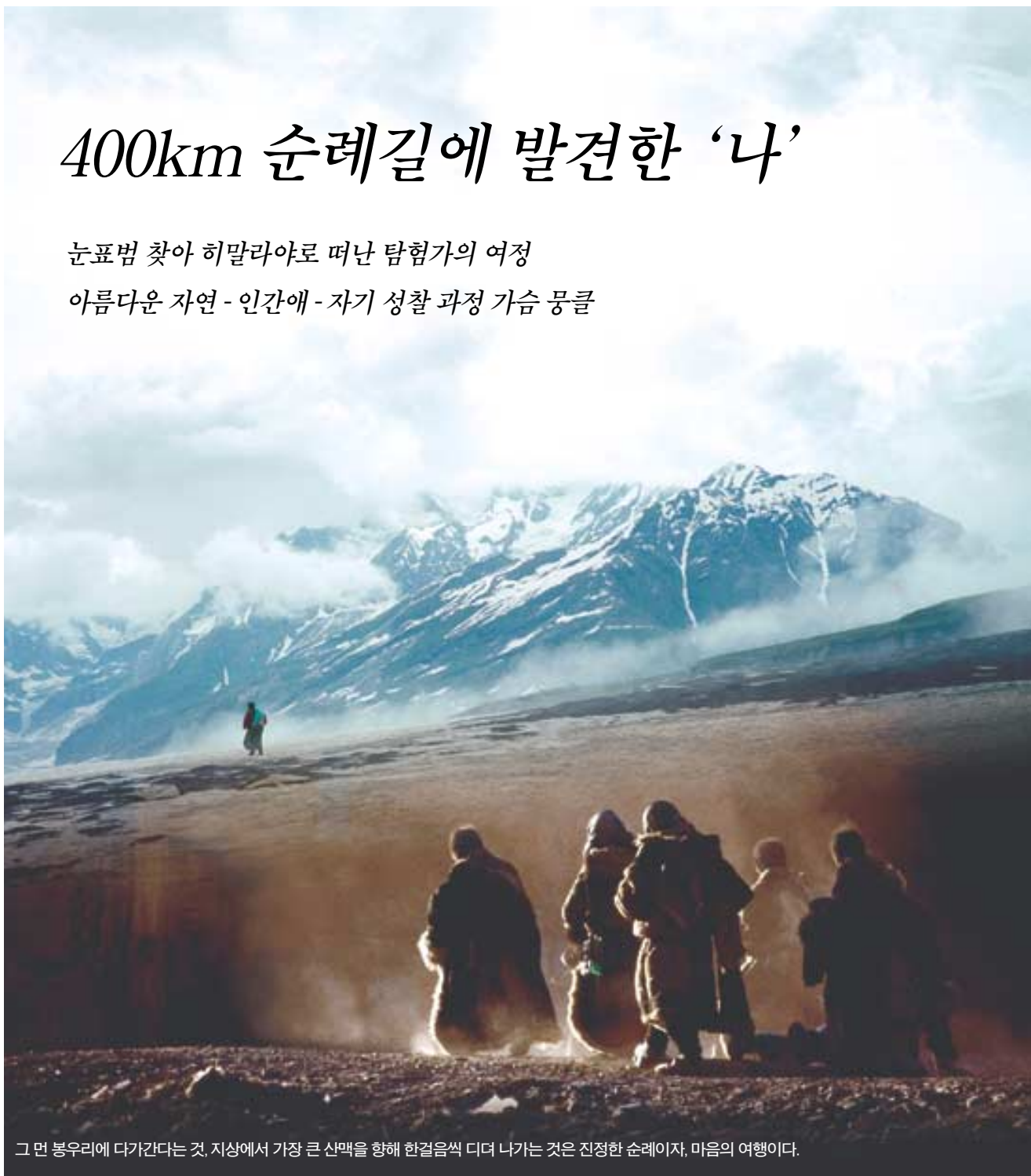
그렇지만 결국 얻은 결과는 비슷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쉽게 볼 수 없는 '눈표범'을 끝내 두 사람은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눈표범'을 보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조지 셸러는 "우리의 여정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 왔다. 보지 않은게



'셰이 고평파' 내에 있는 텡카(사진 위)와 고평파 벽화 전경.

있다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라는 말로, 저자는 "눈표범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그때 가서야 눈표범을 볼 준비가 돼 있다. 보진 못했지만 눈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집착에서의 해방을 토로한다.

이렇듯 이 책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눈표범을 찾아 떠난 여행이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영적 순례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이 여행을 통해 내면의 빛을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소유욕을 버리는 것,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행복과 진리는 바로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있다는 것 등의 깨달음을 얻는다.



400km 순례길에 발견한 '나'

눈표범 찾아 히말라야로 떠난 탐험가의 여정

아름다운 자연 - 인간애 - 자기 성찰 과정 가슴 뭉클

그런 봉우리에 다가간다는 것. 지상에서 가장 큰 산맥을 향해 한걸음씩 더더 나가는 것은 진정한 순례이자, 마음의 여행이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손바닥으로 가려버릴 수 있듯이 엄청난 빛과 신비로 가득찬 이 세상도 치졸하고 속된 삶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가려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눈 앞의 손을 치우듯 자기 시야에서 그런 삶을 치워 버리는 사람은 내면 세계의 엄청난 빛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면의 울림 또한 여정에서 계속된 성찰의 결과다.

이처럼 영적 순례와 생애 여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이 책에는 저자가 느낀 감성과 체험은 물론 저자의 내면 세계가 진솔하게 드러나 있으며,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등이 가득 담겨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이 여정에서 만난 티베트인의 생활방식을 지극히 예찬한다. 간소함

을 행복의 최대비결로 알고, 모든 것을 놓아주며 적게 모으고 단순한 삶을 감수하는 그들의 생활을 따라 배우겠다고 결심할 정도다.

책은 9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기문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 일기속에는 저자가 폭우와 폭설 등 고된 일정을 만날 때마다 등장하는 가족과의 달콤했던 기억들이 많이 적혀 있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 준다. 예를 들면 집에 두고 온 막내아들 알렉스에 대한 걱정,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데버러와의 추억 등이다. 이와함께 이 책에는 저자가 티베트 스님을 만나 그들에게 들은 구도 역정을 소개해 놓아 고승들의 향훈도 느낄 수 있다.

꽃잎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는 발자국까지 확인하고도 눈표범을 놓쳐버린 11월 14일, '크리스탈 사원'에서 만난 리마승은 불편한

다리 때문에 8년동안 두문불출한 상태였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자는 무엇인가 얻어맞은 깨달음을 얻는다. 마치 허공속에 울리는 '그대는 눈표범을 보았는가?'란 누군가의 질문에 '아니,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좋지 않습니까?'란 이번 여행의 깨달음말이다.

뉴욕에서 태어난 저자는 예일대학교와 프랑스 소르본대학교를 나왔으며, 1950년대에 '파리 리뷰'를 창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단순한 '신도'의 수준을 넘은 해박한 불교 지식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권위있는 문학상인 전미도서상을 2회(1979년 현대사상 부문, 1980년 논픽션 부문)나 수상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로맨틱 소설

책 권필드 · 마크 빅터 한센 외 지음 | 강정 옮김 | 화니북스 | 9천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사랑편이다. 친구의 여동생에게 은박 담배 포장지로 만든 약혼반지와 함께 프로포즈 편지를 보낸 군인. 먼저 보낸 아내를 잊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장미를 심어온 남자, 시각장애인 남편을 위해 새로운 미술품이 들어올 때마다 미술관을 찾아 작품 설명을 해주는 부인 이야기 등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는 사랑에 관한 47편의 글이 실려있다.

이 책은 사랑이 늘 감동적인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마음을 살찌게 하는 관심과 배려의 다정한 몸짓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잊고 있던 옛사랑의 추억을 더듬게도 하고, 사랑이 헤쳐나가는 도전적인 순간들도 만나게 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강렬한 사랑의 욕구를 심어준다. 일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우울하거나 좌절할 때, 또한 삶이 지루해질 때 언제든지 주제에 맞게 꺼내 읽으면 좋을 듯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일화를 소개한다.

관심 배려의 다정한 몸짓 '사랑'

우울하거나 좌절할 때 힘주는 이야기들

나와 아내는 헤어질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입맞춤을 나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딸들은 우리를 보며 소리 죽여 웃곤 했다.

세 번의 입맞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작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혼의 하나됨이 갖는 의미와 그 완벽함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입맞춤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서로간의 사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입맞춤은 '정신'이다. 정신은 생각과 일치하는데, 많은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우리의 각기 다른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사랑의 표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을 논의할 때에는 생각과 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입맞춤은 '영혼'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지속될 조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의 조화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얻은 것이다. 나는 세 번의 입맞춤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또 느끼기 때문에, 약간의 비웃음과 놀림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내도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내게는 평화가 찾아오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진다.(세 번의 입맞춤 중에서)

회사에서도 돌려보기에 좋고 소원한 관계에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전자메일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온 글을 한번 소개해 준다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속에서 빛어지는 인간관계 또한 삶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정, 직장, 사회 등 매일 일상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더욱더 멋진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임광욱(우문학자)

현성 스님의 진솔한 토론품

왜 산에 사느냐고 물거든

현성 스님은

1996년 충북 괴산 공림사(空林寺)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탄상(檀上) 스님을 노스님으로 모시고 행자 생활을 했다. 그 해 겨울 받고 이듬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에 입학해서 2001년 졸업했다. 유원근 교수의 추천을 받아 1998년 계간 <포스트모던>에 소설 '미인암(美人巖)'으로 등단했다. 신격(神格)으로 승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 정진했다. 현재 괴산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산 위의 절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소박하고 정겨운 山생활의 충만함 자연 속에서 '참나'를 깨달아가는 포근한 에세이!

"나무들은 사람들처럼 삶이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주위의 사물들에게 전파시킨다. 그들은 명상하는 수행자이며, 폭풍이 불 때는 운운으로 맞서는 자유주의자이고 시인이며 수필가다. 나는 숲이 주는 힘에 고무되어 상쾌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곤 한다. 참나무같이 반듯하고 크고 강인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숲은 나에게 그런 생각마저도 버리라고 한다.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욕심일 것이다."

- <왜 산에 사느냐고 물거든> 본문중에서 -



현성 지음 | 신국판 | 280쪽 | 9,000원 | 여시아문